

사례2. "먹을까? 말까?" 건강 밥상 캠프 - 초등학교 대상, 2박 3일(서울환경운동연합)

-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 및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 농업의 중요성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배워나가는 과정. 건강한 식생활이 개인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, 지구적 의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.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나타나는 불합리한 유통체계, 노동력 및 자원의 착취, 인스턴트나 방부식품 등 밥상의 문제는 바로 세계화로 연결되는 과제임을 강조한다.

주요 프로그램

- [첫째날] 먹을거리 강연 - 라면, 패스트푸드, 과자, 빙과류의 문제, 건강한 먹을거리 만들기
- [둘째날] 환경농업 체험, 천연염색, 순체험, 조별역할극: "먹을까? 말까?" 천사와 악마놀이
- [셋째날] 새끼 꼬아 줄넘기, 달걀 꾸러미 만들기, 조별 음식 실천 강령 만들기

(5) 통합주제 캠프

사례1. 중국여름 워크캠프(China Summer Workcamp) - 중학생, 한중일미 대학생, 4주, 중국 호남성, 미국 AFSC 주관(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한국팀 코디)

- 국제이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. 잠깐씩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과 체류하면서 느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. 환경이슈는 각국별로 시대적인 잣대를 갖는다. 우리와 다른 수준의 환경문제를 체감하고 그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생활해보는 것은 그야말로 훌륭한 국제 이해교육이다.
- 서로 다른 사회문화를 비롯한 자연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체험환경교육을 공동 기획 및 진행. (중국농촌에서는 벼짚을 이용한 화장실 만들기가 아주 좋은 환경교육이 되었다.)
- 교육에서 소외된 중국 교외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각국 참가자간의 소통훈련과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 및 사회 등에 대한 이해 증진, 서로간의 유대 강화.
- 한국팀은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을 담당. 환경교육 담당자와 지역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, 사전 준비모임을 통해 역할 분담하고 결합

주요 프로그램

- [1주] 중국의 문화 및 사회, 중국농촌의 현실 이해를 위한 단체방문, 강의, 탐방 및 투어 프로그램
- [2주-4주] 중국농촌 중학생 대상 환경, 영어, 한국어 등 교육활동. 자원교사로 참여한 그룹 내 위원회 구성, 각국의 문화 및 교육, 사회에 대해 각국별 발표 및 전체 토론. 타국의 교사와 팀을 구성 학급운영.

사례2. 국제이해환경캠프 - "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?!" 초등학교 3-6학년, 2박 3일, 환경교육센터

- 전 지구의 20%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구에서 소비되는 80%의 에너지를 소비한다. 그렇다면 80%의 인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?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문제이다. 전 지구적인 사고를 통해 환경과 나를 살펴보고, 우리 주변 각 나라의 문화·환경 다양성을 접할 수 캠프진행. 국제 환경활동가와 함께 각기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나라의 문화·환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. 국제적인 이해와 안목으로 환경문제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함.

주요 프로그램

- 국제이해환경교육이란? / 다문화체험_ 국제 활동가와 함께하는 각 나라 먹을거리 · 입을거리
- 생태문화 체험 / 우리들의 눈으로 본 국제 환경시민 모의회의, 국제이해환경촌극 / 나는 국제적 탐정,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을 찾아라! / 생태벨트탐방 등